

'깨침의 약' 제대로 만들어라



수행, 날개를 달다

각암 성원 지음
현대불교 펴냄 11만원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깨닫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방법과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경전마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다르고 조사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깨달음이라는 궁극으로 향하는 길이 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다.

<수행, 날개를 달다>는 혼돈 없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수행염경>의 가르침으로 풀어준다. 본래의 갖춰진 이음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제보살만행수행염경>인 <수행염경>은 선법의 중요한 의미와 실행법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다. '능엄'이란 모든 일이 파손되지 않고 완전무결해진다는 뜻인데 '선정'을 뜻한다. 경전의 핵심내용은 사마타(止)와 삼마디(觀), 선(禪)을 차

례로 삼고 우주의 생성원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경은 밀교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는 '능엄다라니(능엄신주)'의 수지 특송을 권장하고 있다. 모두 10권인데 그 중 7권이 능엄신주를 설한 대목이다.

<수행, 날개를 달다>는 <수행염경>을 근간으로 하는 수행의 올바른 방법 즉 '귀복법(歸伏法)'을 설명하고 있다. 귀복법은 철저하게 진리에 귀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허물어지면 수리해서 쓰는 것이요 약이 말라 못쓰게 되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 약을 만드는 법이 귀복법이다. 이 법을 알면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이게 되리라"라는 옛 개승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수행염경>을 풀이하고 해설하는 해설서가 아니라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요체와 수행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수행, 날개를 달다>의 핵심이다. 저자 성원 스님은 평생 수행을 하며 체험한 경지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또 조선시대의 도인으로 전해지는 소승 선사의 어록에서 공부에 요긴한 부분들을 가려내어 귀복법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

현재 남해 화방사 나야에서 정진 중인 성원 스님은 출가 이후 사찰 행정을 맡아 보면서 10년 동안 <금강경>을 독송하고 피를 토하며 관음기도를 했다. 또 1000일 동안 <반야심경> 사경을 했고 <금강경>과 <법화경> 전7권의 사경본 수십 권을 만들어 주변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 해 온 성원 스님이 <수행염경>과 소승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하겠다는 원력으로 <수행, 날개를 달다>를 저술하게 된 것이다. **임연태 기자**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요체와 수행 방법 설명

화가 스님 인도에서 본 것은?



낙타를 모는 성자

허허당 지음 | 호미 펴냄 | 9000원

인도인의 손은 그야말로 천수천안이다.

새까맣게 때 낀 손. 그 까만 손에서 오만가지 일들이 마술처럼 술술 풀려 나온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 그들은 모래를 물처럼 사용한다. 모래를 한 움큼 냄비에 집어넣고 그 까만 손이 냄비 안에서 확 한 바퀴 돌면 눈 깜짝할 사이에 냄비가 반짝반짝 빛난다.

그들의 손은 흙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손은 자연을 떠나지 않는다. 오랜 세월 흙과 함께 자연과 함께 지내는 인도인의 손은 흙처럼 순하고 흙처럼 부드럽다.

최근 7년 만에 '천년의 세월을 씻고'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던 허허당 스님. 한 화폭에 수 천 명의 동자승들을 그려 놓고 동자승들이 이루어 내는 갖가지 형상들을 묘하게 드러내는 독특한 기법의 그림들이 한층 농익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기법의 그림을 시도해 몇 폭을 내 놓았는데 '인도여행에서 상당한 수확도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데 수확은 그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인도 여행은 스님에게 새로운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계기였고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책으로도 묶어진 것이다.

허허당 스님은 그간 화폭에 출현시켰던 수 천 수 만 명의 동자승들과 함께 화엄법계를 탐색하며 '진리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인도에서 낙타여행을 하며 누가 진정한 성자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3	사찰 100대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4	나미스레, 여기는 붓다의 나라	행덕	운주사
5	답답하면 물이라	법륜	정토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7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8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9	행복한 미소	성진	깨미
10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나	성철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조동종의 씨앗에서 열매까지 고찰



조동선요

김호귀 지음
석란 펴냄 | 11만원

중국의 선종은 시대를 따라 다양한 종지를 주장해 왔다. 그 가운데 조동종은 서기 900년을 전후하여 일어난 하나의 선종으로 동산양개와 그의 제자 조산본적에서 유래했다.

조동종은 인간은 모두 불심을 구비하고 태어난다는 본래 불성설을 확고한 기반으로 삼는다. 김호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가 최근 펴낸 <조동선요>는 절강성의 명주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던 조동종의 발생과 발전 내력을 살핀 역작이다. 김 교수는 먼저 불교 이전 인도의 수행법이었던 명상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의 수행법과 중국으로 건너 온 뒤 달마로부터 전해져온 선의 흐름을 짚으면서 조동종의 발생 과정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다. 조동종의 원류인 동산양개와 그의 제자인 조산본적의 선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특히 당송을 거치면서 조사선이 간화선과 묵조선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가는 시기에 조동종의 맥을 이은 광지정각이 묵조선을 주창하며 새로운 형태의 선수행 운동을 열어 가는 과정도 적나라하게 살폈다.

임연태 기자

부처님이 걷던 길에서 배운 것들



붓다의 자취를 찾아서

무선본각 지음
통기 펴냄 | 1만3500원

"붓다니 동산에 앉아 잠시 좌선하고 눈을 떠보니, 해가 저물어 가고 붓다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있는 무수수 나무는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며 우리가 오래된 길을 여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듯 마치 바위처럼 서 있었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이란 주재 상사회의회장까지 역임했다가 이란-이라크 전쟁의 지옥 같은 실상을 접하고 수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자가 붓다의 고향인 인도를 순례하고 쓴 일종의 성지 순례기다.

저자는 올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인도를 찾았다. 이 순례에서 저자는 부처님께서 정각한 '보드가야'를 비롯해 첫 가르침을 펴신 사르나트의 '다메크 스투파', 열반지인 '쿠시나가라', 탄생지인 '룸비니' 등 부처님 성지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그 순회를 한데 묶은 것이 이 책이다.

1부 '꽃비 내리는 길'에서는 유적지마다 감상과 함께 견문 및 자세한 설명을 달아 놓았다. 특히 인도에 관한 기초정보와 몇 마디의 힌두어, 음식 관련 정보 등도 실어 놓아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어 2부에서는 함께 순례했던 도반 9인의 동참기를 정리해 실었다. **김주일 기자**

티베트 17대 까르마빠 이야기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미엘 마연 지음
지영사 펴냄 | 2만원

이 책은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시스템을 처음으로 정립한 까르마빠의 17대 환생자인 까르마빠, 오젠 툰데 도르제에 관한 소개서로 한글로 번역된 첫 번째이다.

1992년, 16대 까르마빠의 유언장에 따라서 환생자인 17대 까르마빠를 티베트에서 찾아나서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그리고 라마에서 7살이 된 까르마빠를 찾아낸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즉시 이 환생자가 적합한 까르마빠 환생자임을 확인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쥬르프 사원에서 17대 까르마빠로 생활하게 된 오젠 툰데 도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호존 마하칼라를 위한 의식과 집귀를 풀리는 의식 등의 염송을 하면서 대중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드렸다. 총명하고 오젠 툰데 도르제는 암도 뱀만을 비롯한 많은 스승들의 도움을 받으며 수행을 계속한다.

중국정부도 인정환생자였지만, 중국의 감독과 감시로 자유롭지 못했던 17대 까르마빠는 티베트를 탈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의 나이 14살이던 1999년이었다. 환생자로 인정 받고, 수행하다가 극적인 탈출을 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김주일 기자**

발로해

(특수기능성 두안족열 양말)

발로해 Ballhoae

내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특별한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널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 **절수형 최고의 수평도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운전, 고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 애지머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습보습 100%보장!**

※KBS (성로봉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안오후) 출연
SBS **스타일** (0.2평의 기적) 출연 BBS **불교방송** (무용수 밝이) 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연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2만원 (세금포함)

주문처: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www.법당정사.kr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 (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융합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 (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중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중무소 전화: 033)343-0103

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송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인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方丈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宗무 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종을 일으켜 중풍을 정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난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宗무원장 德山 釋延和

△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 등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할,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